



문화체육관광부

## 보도자료

사람이 있는 문화

보도일시	12. 17.(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쪽(붙임 6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2. 17.(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전충원(044-203-2758)

##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통합 설계공모 당선작, ‘당인리 포디움과 프롬나드’

- 내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시행, 2020년 착공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중부발전(주)(사장 박형구)와 함께 당인리 문화공간 통합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주)건축사사무소 매스 스터디스(박기수, 조민석, 강준구)의 ‘당인리 포디움과 프롬나드’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폐지되는 서울 화력발전소(서울시 마포구 소재) 4호기, 5호기를 미래 가치를 품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월)부터 12월 7일(금)까지 진행했으며, 총 18개 팀이 공모에 참여해 작품을 제출했다.

이번 공모를 진행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철희)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건축과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1일(화)과 13일(목) 양일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당선작을 포함한 5개 작품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 배형민(서울시립대, 심사위원장), 공순구(홍익대), 구자홍(한국문화예술회관단체연합회), 서현(한양대), 전숙희(와이즈건축), 조병수(조병수건축연구소), 안상수(1차, 파주타이포 그라피학교) → 이경훈(2차, 국민대)

설계공모 당선작인 ▲ 건축사사무소 매스 스터디스(박기수, 조민석, 강준구)의 ‘당인리 포디움과 프롬나드’는 ‘도시·산업·생태×발견·전유·구성·연결·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산업길, 생태길, 지름길 등 세 보행길을 축으로 공간의 내부 활동을 부지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투영할 수 있는 작품을 제안했다.

심사위원회는 “이 작품은 한강을 볼 수 있는 옥상공간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외부공간 구성, 대지에 대한 이해,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태도가 이번 공모의 목적과 부합되어 당선작으로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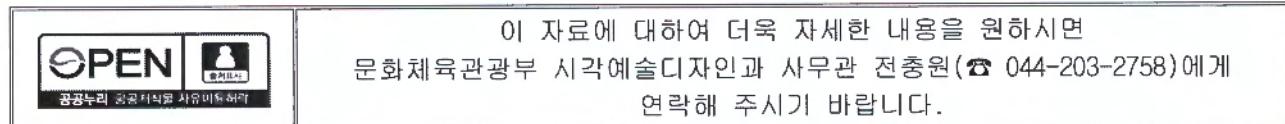
▲ 우수작으로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박도권)의 ‘공간을 비우고 시간의 이야기를 채우다’가, ▲ 가작으로는 제이유건축사사무소(박제유)+원도시건축사사무소(허서구)+김재경의 ‘당인리 문화발전소’, 건축사사무소 아크바디(김성한)+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오(오기수)의 ‘스토크(STOKE)! 더 보일러(THE BOILER)’,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송주경)+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박명협)의 ‘프로그레시브 심비오시스(PROGRESSIVE SYMBIOSIS)’가 선정됐다.

당선작에는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의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되며, 우수작 수상자는 4천만 원, 가작 수상자는 각각 2천만 원을 받는다.

한편, 당인리 문화공간조성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설계를 착수해 2022년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수상작은 이번 공모의 공식 누리집 ([www.danginri-compe.org](http://www.danginri-comp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수상작 명단

2. 수상작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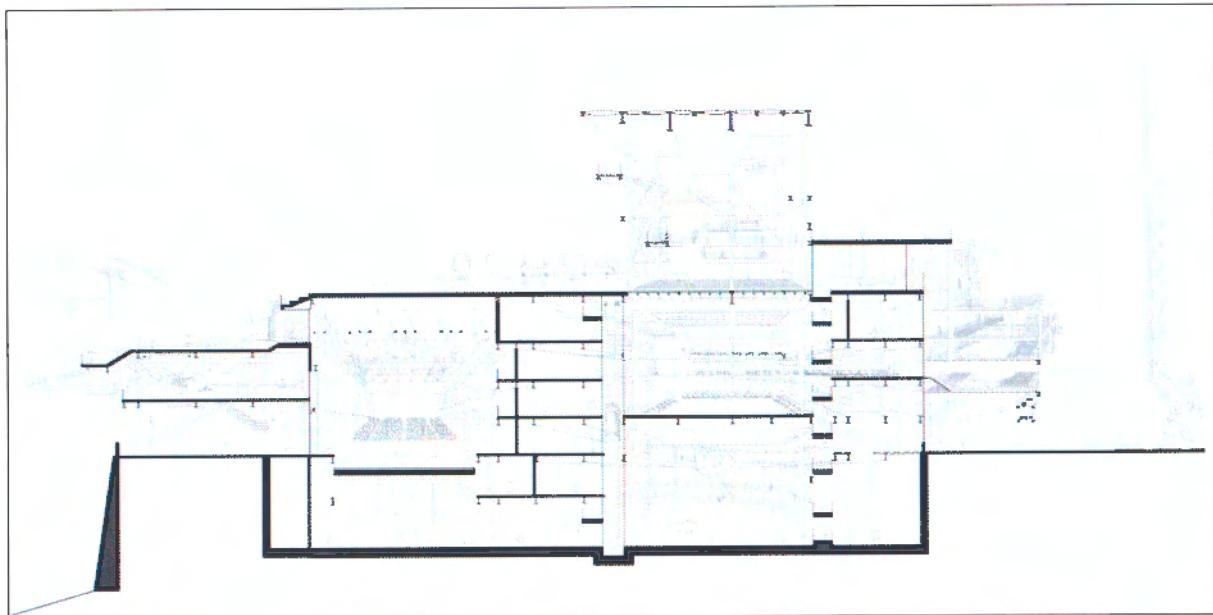
구분	작품명	당선자
당선작	당인리 포디움과 프롬나드	·건축사사무소 매스터디스 (박기수, 조민석, 강준구)
우수작	공간을 비우고 시간의 이야기를 채우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박도권)
	당인리 문화발전소	·제이유건축사사무소(박제유) ·원도시건축사사무소(허서구) ·김재경
가작	스토크! 더 보일러 (STOKE! THE BOILER)	·건축사사무소 아크바디(김성한) ·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오(오기수)
	프로그레시브 심비오시스 (PROGRESSIVE SYMBIOSIS)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송주경)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박명협)

- 당선작: 당인리 포디움과 프롬나드  
(건축사사무소 매스터디스(박기수, 조민석, 강준구))

○ 조감도



○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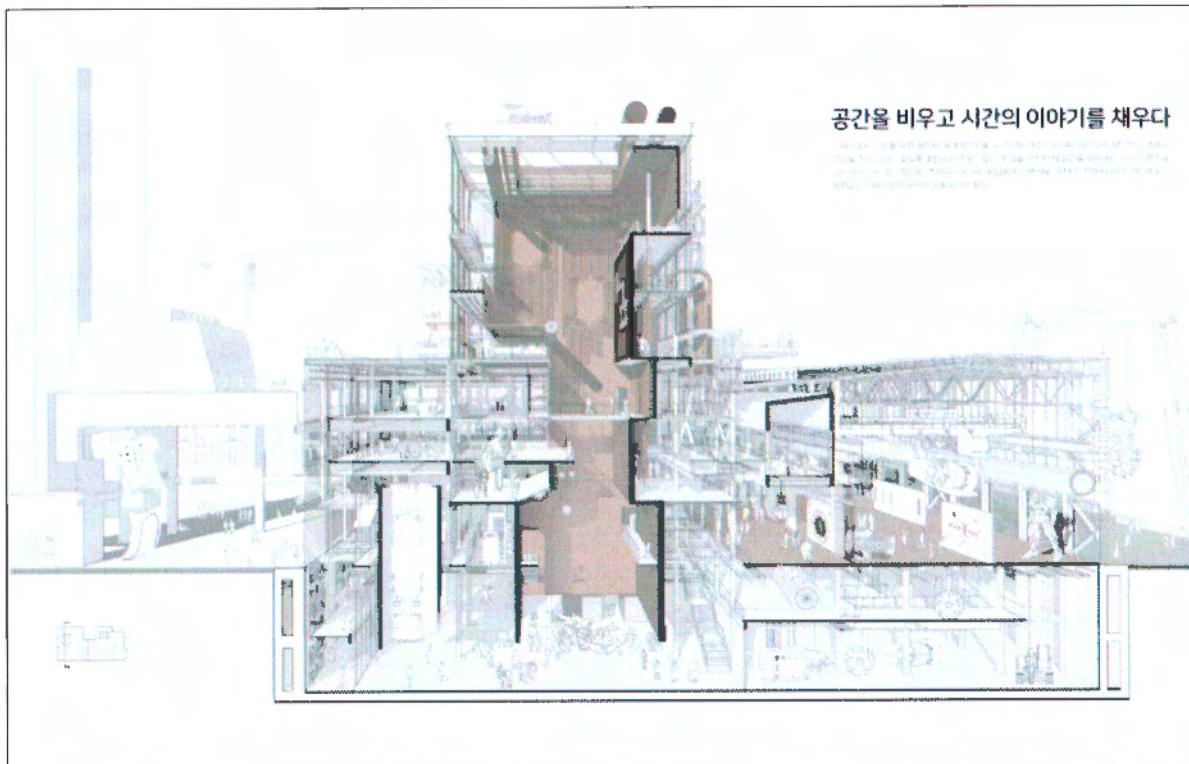


□ 우수작: 공간을 비우고 시간의 이야기를 채우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박도권))

○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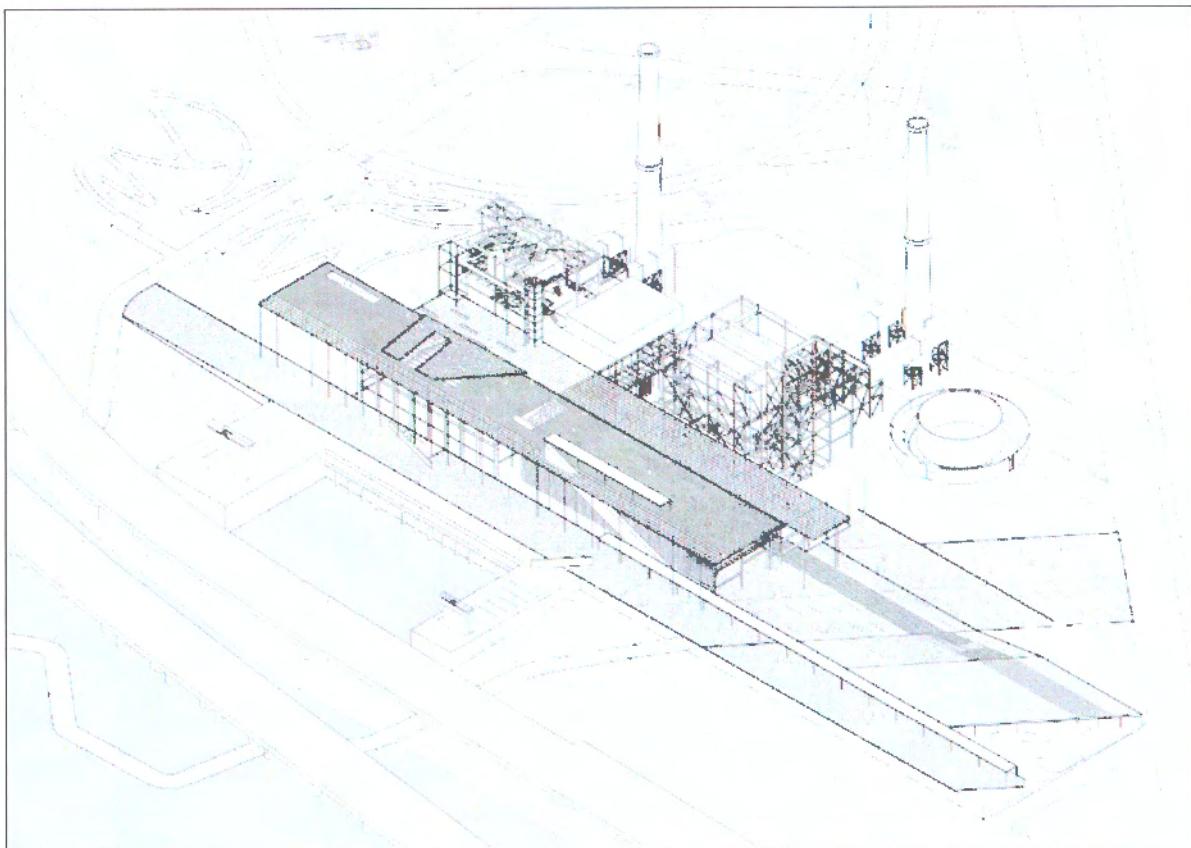
○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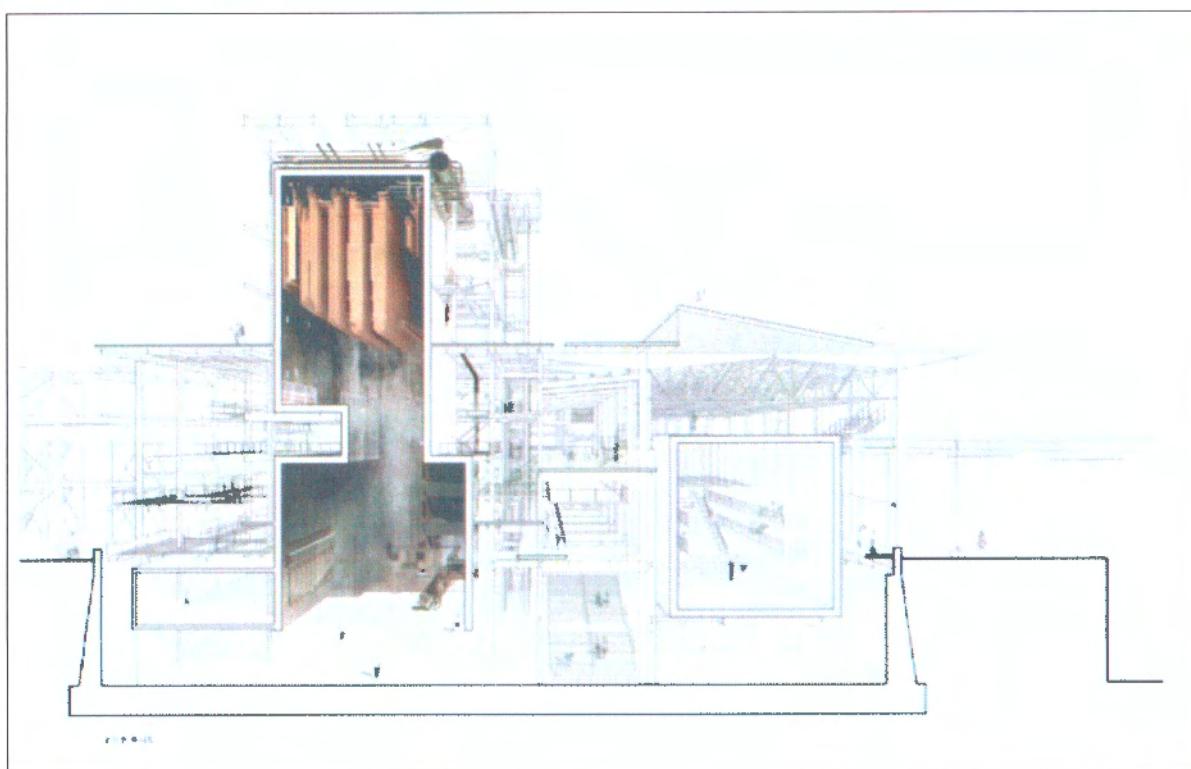
□ 가작: 당인리 문화발전소

(제이유건축사사무소(박제유)+원도시건축사사무소(허서구)+김재경)

○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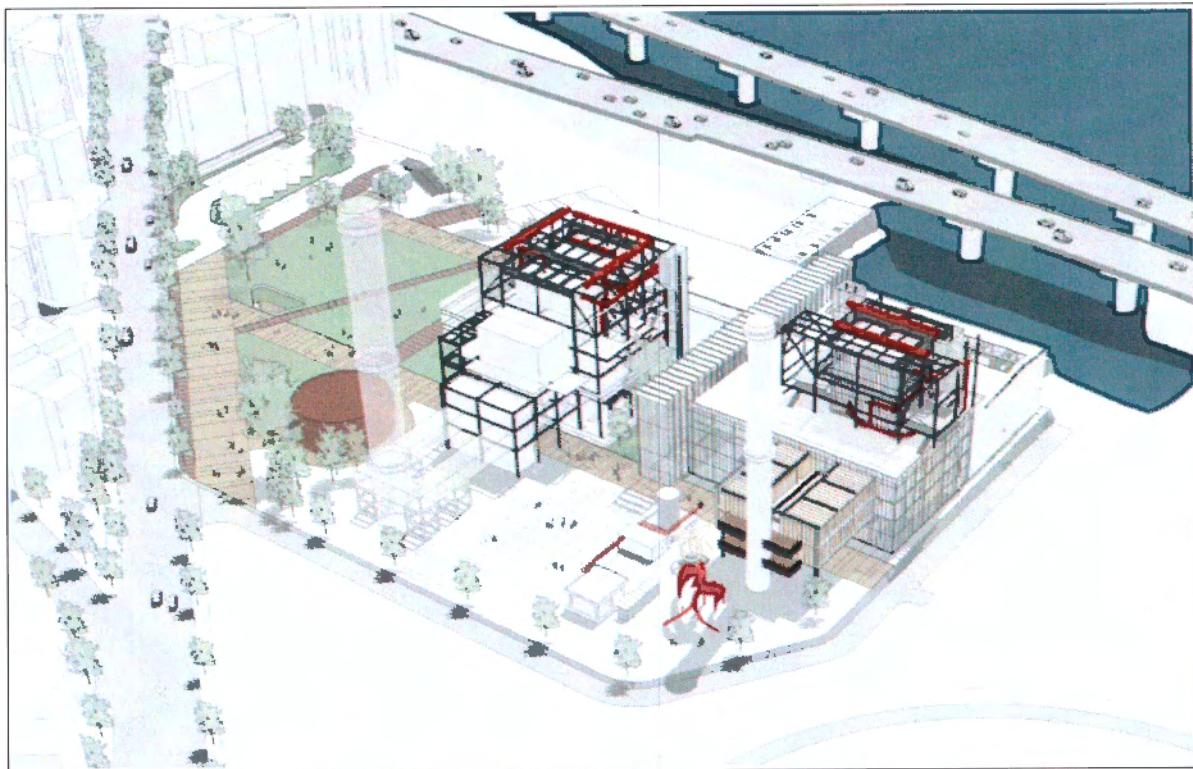
○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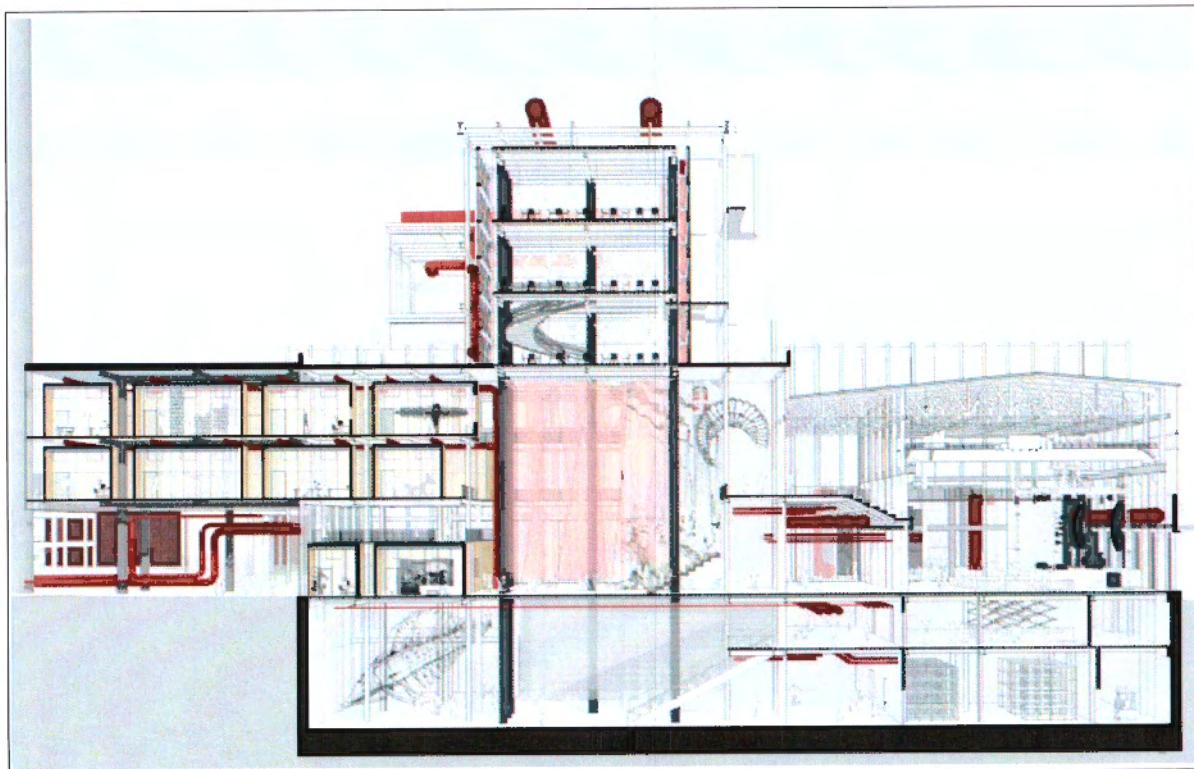
□ 가작: STOKE! THE BOILER

(건축사사무소 아크바디(김성한)+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오(오기수))

○ 조감도



○ 단면도



□ 가작: PROGRESSIVE SYMBIOSIS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송주경)+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박명협))

○ 조감도



○ 단면도

